

강의 2: 주기도문 (2) - 마태복음 6:9-13 중심으로

- 1) 하나님을 부름(9절): “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”
- 2)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세가지 간구(9-10절)
- 3) 우리의 필요를 위한 세가지 간구(11-13절)

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우선 ‘하늘에 계신’(초월성) ‘우리 아버지’(내재성)를 부르고 나서, 그 하나님을 위해,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3가지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(카디쉬 기도문 참조).

1. “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”(9절)

- 1) 당신의 이름이(사 29:23)

- 2) 거룩히 여김받게 하소서(시 30:4; 겔 36:23)

2. “나라가 임하시오며”(10절)

- 1) 당신의 나라가

 - 2) 도래하게 하소서
- * ‘이미’와 ‘아직’의 긴장(마 12:28; 마 13장의 천국 비유)

3. “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”(10절)

- 1)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(마 7:21; 12:50; 예수님, 마 26:42)

- 2) 하늘에서처럼, 땅 위에서도(cf. 마 18:18, “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...”)

<나눔 질문>

1.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될 것이며,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완성될 것이며,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.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. 그렇다면,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실 일을, 다 알아서 하실 일을 왜 우리가 간청해야 하는 걸까요?

2. 하나님이 인정받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며, 그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. 여러분의 다양한 삶의 자리 중, 이 세 가지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? 그곳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/나라/뜻이 세워지고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십시오. “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”(9절).